



“송어 쏘아지는 울돌목으로 가요~”

땅끝 해남 우수영 명물
8일 맨손 송어잡기 체험
잡은 만큼 가져가고 시식
우수영관광지 7월28일까지
주말 공연·체험프로그램

“울돌목으로 송어 잡으러 가자.”
땅끝 해남 우수영의 명물, 울돌목 송어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해남 우수영문화마을주민협의회(회장 조인현)는 8일 문내면 우수영여객선 터미널 내 체험장에서 보리송어 맨손잡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6월 보리아삭이 뿔 무렵에 잡혀 ‘보

리송어’라 불리는 봄철 송어는 여름철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올라 달고 찰진 맛이 일품이다.
특히 우수영 송어는 거센 조류의 울돌목 바다를 거슬러 오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송어 맨손잡이 행사는 오전 11시, 11시30분, 오후 4시30분, 5시 각각 진행

되며, 참가비는 3000원이다.
30분의 제한시간 내에 잡을 수 있는 만큼 가져갈 수 있다.
또 1만원을 내면 송어잡기 체험부터 직접 잡은 송어회를 떠주고, 먹을 수 있도록 양념 등을 제공한다.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 뜰채 송어잡이도 진도대교 교각 옆에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 해상에서 뜰채를 이용해 송어를 잡는 방법으로 물때에 맞춰 인근 지역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한다.
또 우수영관광지에서는 오는 7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에 명랑역사체험마당이 열려 각종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보리송어 맨손잡기 행사 문의는 우수영문화마을주민협의회(061-533-4116)로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햇다시마 단가 2400원 ‘뚝’... 우울한 위판 첫 날

완도 금일, 전국 생산량 78%
평균 5100원...전년비 32% ↓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인 완도군 금일도에서 햇다시마 위판이 시작된 가운데 평균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32%나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완도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올해산 마른 다시마 첫 위판이 시작된 이후 다시마 생산어민과 중매인 사이에 경매가 펼쳐지고 있다.
위판 첫 날 90건 104t이 거래됐다.
위판 가격은 kg당 최고 7190원, 최저 3000원이며 평균단가는 5100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인 금일도에서 햇다시마 위판이 시작됐다. <완도군 제공>

이는 지난해 첫 위판과 비교해 평균 단가가 2400원(32%) 떨어진 수치다.
다시마 생산 어민들은 위판가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시마 소비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완도금일수협의 다시마 위판은 오는 7

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현재 완도지역 2669어가(3663ha)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4840t

이 위판돼 전국 생산량 대비 78%를 차지했다.
지난해 금일에서는 총 3264t(위판액

256억원)이 위판됐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 공공 산후조리원 17일 연다

대성병원 ‘전남 3호점’...기초수급자 등 70% 할인

완도 대성병원에 신축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3호점이 1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완도군에 따르면 3호점은 전남도와 완도군, 완도대성병원이 16억93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에 220평 규모로 준공했다.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해 10개의 산모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마사지실, 좌욕실, 휴게실, 상담실, 산모돌봄센터 등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췄다.

신생아 감염 관리를 위해 모자 동실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신생아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자 입구에 에어워셔, 신생아실 공기 멸균기 등을 설치했다.

중사자 예방 접종은 물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회진

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산모돌봄센터는 20여평 규모의 안락한 공간으로 조리원 1층에 마련했다.

요가, 산후관리교육, 웃음 치료 등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완도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가족, 중증 장애인 산모, 귀농·귀촌인 등은 이용료의 70%를 전남도와 완도군이 지원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7월까지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

진도군 상시 단속반 운영

진도군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를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된 상시 운영하며 합동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반 4명으로 구성돼 6월

중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은 취약지역인 섬 지역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가정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거나 농원 등에서 소량으로 재배하는 것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대마 등 집중반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즉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061-540-6053) 또는 검찰청(국번없이 1301)으로 신고해야 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 원도심 밝힐 거리 음악가 모여라

28일까지 토요 상설 버스킹 공연자·단체 모집

진도군이 진도군만의 특화된 거리문화 공연 운영을 위해 토요 상설 버스킹 공연자·단체를 모집한다.

진도군은 집도를 원도심과 울돌목 주말장터의 활력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토요 상설 버스킹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버스킹 공연은 진도읍 원도심의 진도연합세마음길과 주차장과 울돌목 주말장터

공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매주 주말 1회 30여분 진행된다.

공연자 모집은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공연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연자(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 가능한 공연 장르는 악기연주·국악·노래·댄스 등 제한없이 무엇이든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진도군민은 물론 전국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독립적으로 공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야외공간을 활용해 공연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참가 신청서, 공연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진도군청 경제마케팅과에 방문·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jindo1@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선정은 공연 계획서와 활동 실적 등을 바탕으로 대중성·적합성·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그린궁 **프리미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리미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